

가상현실로 강의 듣는 시대 ‘성큼’

# 국민대, ‘VR 캠퍼스 구축’ 첫 발

캠퍼스 내 주요시설 VR로 구현  
100명 동시접속에 사용자 식별  
음악·게임 등 콘텐츠 제작 가능  
발표·강의·동아리도 VR 추진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가 가상현실(VR)캠퍼스 구축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가상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게임처럼 다른 사용자를 식별해 이미지나 게임, 음악 등 콘텐츠를 가상공간서 공유도 가능하다. 추후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서도 가상현실을 도입할 계획이다.

6일 국민대학교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학생들이 가상현실(VR) 환경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 캠퍼스(KMU VR Campus)가 구축됐다. 국민대 북악관 로비에 고화질의 가상현실 캠퍼스를 체험할 수 있는 잠망경 형태의 체험 기기(kiosk)가 설치됐다.

가상현실 캠퍼스는 교육부 주관 대학 혁신지원사업 시범(PILLOT)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가상현실 환경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고 VR산업을 이끌 우수 인재를 양성해 낸다는 것이 목표다.

캠퍼스 내 19개 건물과 운동장 등 주요



유지수 국민대 총장이 국민대 북악관 로비에 마련된 잠망경 형태의 가상현실 체험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국민대가 가상(VR)캠퍼스 구축의 첫 발을 내디뎠다. 교내 건물과 운동장 등 캠퍼스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게임처럼 다른 사용자와 콘텐츠 공유도 가능하다. 추후 강의나 토론, 동아리 활동도 가상현실로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국민대학교

시설이 실제와 유사하게 온라인 상에서 가상현실로 구현돼 체험할 수 있다. 사용자가 데스크탑·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캠퍼스 내부를 돌아보며 체험하는 형식이다. 최대 100명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다른 사용자를 식별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가상현실 캠퍼스 안에서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공유하고 음악·게임 등 콘텐츠

제작까지 가능하다.

국민대는 가상현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키워드로 보고, 그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체계적인 연구 기간을 거쳐 이번 가상현실 캠퍼스를 구축했다.

사업을 총괄한 이경훈 교수(건축대학장)는 “가상현실은 우리 생활 공간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환경이기도 하다”며 “학생들에게 친숙한 캠퍼스를 우선적으로 가상현실로 구현했으며 미래에는 이 안에서 강의, 발표, 토론, 동아리 활동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아울러 이번 가상현실 캠퍼스 구축을 시작으로 가상현실과 관련된 다양한 전공·교양 강의를 개설해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가상현실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軍양성평등, 이제 역차별을 고민하라



문명철

국방기자 칼럼

여성은 군이라는 조직에서 약자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여성 군인들은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군에서는 남성에게 대한 ‘역차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6일 제4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양성평등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민간 위원 9명과 군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위는 성인직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민주적 군 문화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양성평등위는 ▲위원회 훈령 제정(안) 확정 ▲성평등교육문화 ▲성평등제도개선 ▲성폭력대책 소위원회 운영 ▲국방 양성평등정책 이행 현장 방문 ▲사적 연락금지 등 사생활 침해 방지 개선 ▲법무관에 대한 성인직적 향상교육 정례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수당 인상 검토 등 9개 과제의 성과분석을 했다.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핵심인 자리이지만, 야전의 군인들의 생각은 ‘높으신 분들의 외침’ 정도인 것 같다.

최근 한 여성 대위가 군경력과 나이가 많은 남성 중사에게 반말과 폭언, 사적제재를 일삼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해자인 대위는 문제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휴가를 떠났고, 피해자인 중사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장교와 부사관의 신분 간 문제가 아닌, 남녀 성별의 역차별이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의 한 군인은 “통상 문제를 일으킨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와 함께 근신조치가 내려지는데 어떻게 휴가를 갈 수 있느냐”며 “최근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 이렇게 조치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폭력, 군내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훈련 지침과 당직근무 등 일상 업무에서도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 모 부대는 훈련시 여성 간부를 단독군장 차림의 선두침병으로 배치하려다가, 내부 반발로 계획을 취소했다. 육군사관학교는 몇 해 전 조별 전투력 측정을 하면서 여성도의 군장 내용물을 남생도에게 맡기는 일도 있었다.

장교로 퇴역한 한 여성은 “과거 여성 군인들은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위해 스스로 싸웠다. 그 결과 여군 병과가 폐지되고, 남성처럼 병과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서 “여성이 군이라는 조직에서 똑같은 군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인 차별을 혁파하고,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 군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일 것”이라며 “지나친 배려는 여성과 군대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는 18년 전 육군 소위로 보병학교에서 여 동기생들과 함께 훈련받던 시간을 떠올려 본다. 남자 동기생들보다 당당하고 똑똑했던 여 동기생들은 이제 군에 몇 남지 않았다. 군 당국이 이런 현실을 아는지 궁금하다.

/captinm

## 오늘 첫 모의고사... 전국 107만명 응시

대학 가능도 학업준비도로 활용  
고 1·2·3 각기 다른 수능 준비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하는 올해 첫 모의고사가 전국 고등학교 1,2,3학년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올해는 대입 수능 체제 개편에 따라 각 학년별 다른 수능을 치르게 돼 이를 고려한 수능 대비와 이후 학습전략이 요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고등학교 1,2,3학년 107만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입을 치르는 고3 학생 응시자는 47만여 명이다.

대입과 수능 체제 개편에 따라 이번 모의고사도 각기 다른 형태로 출제된다. 고3의 경우 2020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춰 국어와 영어는 공통 유형으로, 수학은

가·나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다.

고2의 경우 2015교육과정 운영 상황과 2021학년도 수능 체제를 고려해 고1까지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수학은 가·나형, 탐구과목은 각 선택 과목별 문제지를 제공한다.

또 3개 학년 모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참신하면서도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된다.

시험에는 전국 1891개 고교 107만명이, 서울에서는 273개교 25만 명의 학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시험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4시32분까지 352분간 4교시에 걸쳐 진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표를 처리하고 개인별 성적표는 25일 제공된다. 고1,2,3

영어와 한국사, 고1 탐구영역은 절대평가로 원점수와 등급이 기재되고, 이외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첫 모의고사 성적을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을 가능하는 용도보다는 향후 학습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하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3월 학력평가로 지원 대학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답의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개념이나 응용이 약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등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신성적이 좋다면 학생부전형 위주로,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면 논술 또는 수능전형 위주의 대입 전략을 세우는게 유리하다.

/한용수 기자

## “모든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교육부 “일정 앞당겨 상반기 중 완료”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지속되자, 교육부가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전 학교 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실태 점검을 위해 서울여의도초등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까지 모든 유·초·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 안에 앞당겨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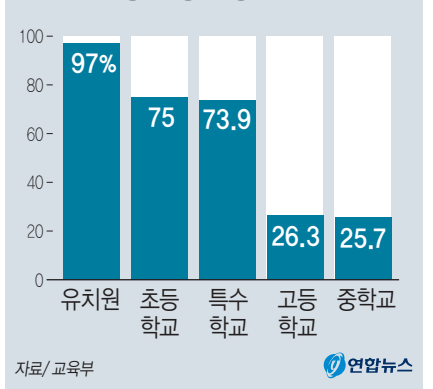
중·고등학교에는 우선 올해 6만여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국회 추경예산 약 1000억 원 확보를 요청해 설치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유치원과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를 조사한 결과, 전국 2만877개 학교 27만2728개 교실 중 41.9%(11만4265개)에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가 없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비율은 유치원(97%), 초등학교(75%), 특수학교(73.9%)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중학교(25.7%), 고등학교(26.3%)는 4곳 중 1곳 정도에만 설치돼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세종 관내 초·중·고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비율



돼 있지만,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소재 중학교(7.8%), 서울 소재 중학교(15.2%), 서울 소재 고등학교(14.5%) 등은 10곳 중 1곳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크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교육 당국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연일 지속되자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차관과 실·국장을 점검반장으로 해 15개 교육청별로 1개교씩 미세먼지를 비롯한 신학기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 숙명여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초청 강연회

숙명여자대학교는 6일 오전 교내 백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초청해 ‘도서관 미래를 디자인하다’ 강연회를 개최했다.

숙명여대 중앙도서관과 한불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반 전 사무총장은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정통 외교관료와 국제기구 수장으로 활동했던 생생한 경험담을 소개하고 젊은

이들이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강연 이후 대학생 300여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강연회는 숙명여대 도서관이 사회 각 분야 명사를 초청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독서 활동 고양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한용수 기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